

21세기 여성, 미래를 엿보다¹⁾

유연희

서론

지금은 세계가 유례없이 빨리 변화하여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상 예언자이다. 예언자는 예언해야 한다. 미래에 대해 할 말이 없어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도 말해야 한다. 무엇을 말할까?

21세기는 모든 일이 글로벌한 영향을 갖게 되었고, 모든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글로벌한 개인이 되었다. 우리는 분명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 21세기 인간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 얼마나 될까? 21세기라고 하면 웬지 그동안 공상과학영화가 보여준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로봇, 사이버 인간, 상상 밖의 기계문화와 우주 세계 등등. 실제로 로봇 청소기처럼 인간의 상상 속에 있다가 실용화가 된 예가 많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람과 영혼을 공부하는 교역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역자나 신학인 역시 글로벌한 개인이요, 글로벌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국가인 한국에서 글로벌 교역자로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높아진 GDP, 83%에 달하는 대학진학률 등은 한국이 잘 나가는 국가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GEM(Gender Equality Measure, 여성권한척도), 관리직 여성 비율, 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지표는 여성의 인권이 아직 미미하다고 말해준다. 21세기의 한국 여성은 이 두 현실 사이에 끼여 새 천년을 열고 있다.

이 글은 현 시대의 징후를 통해 미래를 엿보려는 시도이다. 21세기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란 언제일까? 바로 이 순간 다음부터가 미래의 영역이므로 내일도 천년 후도 미래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우리의 인생 범위 안에 있다. 곧 우리가 현역으로 일하고 또 은퇴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시간 범주를 염두에 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년에서 30년 후의 세상을 ‘미래’라고 정해 보기로 한다. 이 시대의 현상들이 미래를 엿보게 한다. 이 글은 미래학, 새로운 트렌드, 세계와 한국의 여성, 여교역자 등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사람들, 동시에 지금 현재라는 공간에서 미래를 사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1) 이 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의 “여목사, 담임목회자 포럼”(2008년 10월 20일)에서 발표한 글로서 「한국여성신학」에 실렸다.

1. 미래로 가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첨단 학자들이 베를린 장벽 옆을 지나면서 다음 날 장벽이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 미래학자 피터 매니커스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²⁾ 1989년 11월 9일 저녁,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비온 위트록(Bjorn Wittrock), 리처드 휘틀리(Richard Whiteley), 한스 요아스(Hans Joas) 등의 학자들은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서 크로이츠베르크(터키인들이 서베를린에 살며 형성한 마을)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고 검문소를 지나쳤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버스운전사는 “또 시위행렬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일행도 그 말에 수긍하며 지나쳤다. 일행은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베를린 장벽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첨단 학자들이 이 ‘붕괴’를 아무도 예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나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간단히 미래학에 대해 이해해보자. 웬델 벨(Wendell Bell)은³⁾ 미래에 대한 사고가 필요한 이유로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보다 책임을 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현시대의 사회변화와 미래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한 자격 있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

미래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학파로 나뉜다. 첫째, 기술자유주의적(technoliberal) 패러다임으로서 시장경제, 대의민주주의, 첨단과학기술제품을 신봉하고 여기에는 자유주의 미래학자와 보수주의 미래학자가 있다. 둘째, 급진적 또는 마르크스적 패러다임으로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셋째, 반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를 배척하고 공동체의 자기 통치, 자연과의 조화, 지속가능한 경제 등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범세계적 문화를 옹호하는 패러다임이다.⁵⁾

리처드 슬로터(Richard A. Slaughter)는 서구산업사회의 세계관에는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 영리착취(다국적기업, 은행 등 이윤추구 조직), 민족주의(군산복합체), 식민주의, 탐욕, 근시안적 사고, 자아, 죽음에 대한 공포 등 반 생명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다

2) 피터 매니커스(Peter T. Manicas), “과거 설명과 미래 예언,” 217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제임스 데이터 편, 우태정 역 (예문, 2008). 원제는 *Advancing Futures*.

3) 벨은 미래학 교육의 목적으로 다음을 든다. 1. 본인, 집단, 사회, 세계의 미래까지 탐색하는 법과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행동, 행동하지 않음이 가져올 미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2.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하는 법을 보여준다.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과 이를 객관적으로 시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3. 비판적 담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증거가 있을 때 자기 생각을 흔쾌히 바꾸는 자발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웬델 벨, “책임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미래,” pp. 57-93 in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4) 벨, “책임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미래,” 80쪽.

5) 워런 웨이거(W. Warren Wagar), “과거와 미래” 142-57 in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웨이거는 “과거를 복원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고 지적한다. 그래서 경험적 트렌드를 고려하고 법, 규제, 사회 내 절차 등을 고려하고, 인식론, 의미, 패러다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다층적 인과관계 분석(layered causal analyses)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인류의 미래란 외계인이 지구인을 찾아온 다거나, 인간은 지능형 기계가 되기 전의 과도기적 종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류는 무한한 자기변신과 성장, 개발이 가능한 존재임을 믿는다. 과학과 기술은 파생적, 부차적이며, 문화는 서로 함께 초개인적 목적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슬로터에게 있어서 미래학의 근본 목표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한 형태의 문화에서 다른 형태의 문화를 이행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⁶⁾ 슬로터는 앞에서 언급한 세 학파 중 세 번째에 가깝고 나 역시 지향하는 미래형에 가깝다. 이런 넓은 배경에서 우리의 과제를 계속 서술하기로 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말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과 새로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억부터 시작해서 히웅까지 미래 사회와 관련된 모든 주요 개념을 사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⁷⁾ 그러나 여기서는 21세기 여성, 여교역자, 리더십,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만 다루고자 한다.

미래에는 무엇보다도 비만이나 질병을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영양물을 보충하고, 건강보호를 겨냥한 하이테크 식품이 나온다. 스마트식품(smart food, 보통사람이 하루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크기의 식품)이 2015년까지 나온다고 한다. 또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도 나온다.⁸⁾ 이러한 식품의 개발은 여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엌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미리 알고 공략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해도 질병 예방을 위해 약을 미리 복용한다.⁹⁾

어린이는 미래 혁명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¹⁰⁾ 북반구는 가족 내의 불안이 날로 증가하고, 어린이는 성숙이 빨리 찾아오면서 점차 유년기가 짧아질 것이다. 투표연령이 16세, 그런 다음 곧 14세로 낮춰질 것이다. 남반구는 영양실조, 어린이 병사, 기업에 의한 착취, 어른에 의한 학대,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30년 후면 이런 어린이가 7억 명이 될 것이다. 어린이는 남, 북반구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십대들은 1세기 전보다 신체적으로 더 성숙하고 인터넷과 자동차로 좀 더 독립된 생활을 한다.¹¹⁾ 고등학교가 폐지될 것이고, 대학은 15-16살에 입학한다. 모든 사람이 대

6) 슬로터, “지적, 응용 학문으로서의 미래학,” 158-89 in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켄 윌버(Ken Wilber, 1981)와 듀언 엘진(Duane Elgin, 1993)의 관점을 따른다. 슬로터는 물론 서구산업문화에 사회정의라는 이상, 좋은 기술,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과 같은 바람직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불안정한 세계관은 사회적 세계(social world)를 계속 만들어내고 자연세계(natural world)를 계속 파괴한다고 지적한다.

7) 실제로 아탈리는 그렇게 다루었다. 참조. 자크 아탈리, 『21세기 사전』, 중앙 M&B, 1998. (편혜원, 정혜원 역). 원제는 Jacques Attali, *Dictionnaire du XXIe Siecle* (Librairie Artheme Fayard, Paris, 1998).

8) 이인식,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김영사, 2000), 242-47.

9) 이인식,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258.

10) 아탈리, 『21세기 사전』, 222-23.

학에 갈 필요는 없고 취업하거나, 기술을 배운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많은 수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 유엔의 예측에 의하면 2050까지 세계 인구는 89억 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미국 퇴직자 1명당 근로자가 3명이다. 세계 전체로 볼 때 20세기 말에 퇴직자 1명당 근로자가 11명이었는데, 2050년에 퇴직자 1명당 근로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곧 소수의 근로자가 다수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버릇 없는’ 젊은이들 덕에 희망이 있다. 외동이나 소수의 자녀로 원하는 것을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이 젊은이들은 야망이 있고, 자신만만하고, 도전적이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취약점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서 해낼 것이다.¹²⁾

현재 미국에서의 젊은이들은 어떠한가? 중고등학생 600만 명은 뜨개질에 심취해 있다(총 2,000만 명이 뜨개질 인구). 바느질과 같은 수공예 인구 중 4%가 남성이다.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게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한다. 2,500년 역사를 가진 이 활동이 최첨단 과학시대에 새로운 요가, 새로운 명상법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들어 개성과 정체성,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것을 맞춤식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³⁾ 곧 앨빈 토플러가 말한 탈대중화(demassification)와 프로슈머¹⁴⁾의 세상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양상 또한 이 시대와 미래를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 전체 가정의 63%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개는 4,400만 가구, 고양이는 3,800만 가구이다. 고양이 인구가 개보다 1,700만 마리나 많다. 고양이는 한 마리 이상 키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고기, 새, 뱀 등을 키우는 가정까지 합치면 이들 가정은 아이가 있는 가정 수보다 배나 높다. 지난 15년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줄어든 비율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한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반려동물용품 산업은 어린이 장난감, 사탕, 철물 산업보다 규모가 크다. 펫 시터스 인터내셔널(Pet Sitters International)이 일 년에 한번 ‘애완동물 직장에 데려가는 날’에 동참한 회사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¹⁵⁾ 역시 외동이나 소수의 자녀로 자라는 어린이들이 반려동물을 원할 때 부모는 거절할 수 없고 어린이 및 반려동물 관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세계화는 인류가 대규모로 이주 노동을 하게 만들었다. 각국은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받는 나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제임스 쉐넬브레너 의원이 불법 이민자에게 음식이나 치료를 제공하기만 해도 중죄로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11) 이인식,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265.

12) 이인식,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259.

13) 마크 펜, 『마이크로트렌드』 (해냄, 2007), 271. 원제는 *Microtrends: The Small Forces Behind Tomorrow's Big Changes*.

14) 프로슈머란 생산자이고 동시에 소비자인 경제형태로서 GDP에 환산되지 않는 비화폐경제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농가와 협동하여 농사를 짓고 가격과 품질을 보장한 새로운 농업 형태가 진정한 프로슈머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슈머가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토플러, 『부의 미래』, 제 6부 참조.

15) 펜, 『마이크로트렌드』, 194 이하.

그러자 2006년 봄 39개 주 140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데모 행진을 하였다. 미국에는 총 1,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서류 미비자”)이 있다. 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선거인단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¹⁶⁾ 이 현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만 받고 그에 합당한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 교회의 새로운 이슈인 동성애의 경우, 2006년도에 미국인의 태반이 괜찮다고 답변했다. 게이도 직장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88%가 응답했다(1977년에는 56%).¹⁷⁾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와 관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사회 분위기가 더 열리면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결혼 후 커밍아웃 할 경우에는 특히 이성애자 배우자까지 새로운 목회적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에 의하면, 북반구(부유한 나라들)의 여성은 시장, 문화, 정치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가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¹⁸⁾ 세계의 유목화와 더불어 여성화도 진행되고 새로운 형태의 유목이 될 것이다. 남반구에서는 여성의 역할 증대로 모순이 혁명적으로 폭발할 것이고 여성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높은 산모사망률(북반구보다 15배)이 이어지고, 여성의 몫으로서의 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북반구 여성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남, 북반구의 여성이 연대하게 될 것이다. 아탈리는 여성이 사회 발전의 핵심임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여성이야말로 교육, 사회보장제도, 물 분배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관해 전망하면서 아탈리는 기독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¹⁹⁾ 그러나 한 세기만에 10%에서 20%로 증가한 이슬람교는 계속 증가해서 3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시에 새로운 종교가 계속 생겨나고 이단과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질 것이다. 각자 원하는 대로 여러 신학 요소를 조합해 새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크 펜(Mark Penn)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독립적으로 신흥종교들을 선택하는데, 이런 신흥종교운동의 추종자들은 공동체, 관계, 긍정, 영감, 목적을 추구한다.²⁰⁾

아탈리는 미래 인류를 유목의 시각에서 본다.²¹⁾ 문명은 만년 전에 정착했는데, 불안정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유목화, 휴대화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인류의 5%가 유목화하였다. 이주 노동, 정치 망명자, 쫓겨난 농민들, 하이퍼 계급(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꼭대기층으로서 부유한 유목민)이 유목을 시작했다. 유목민은 가볍고, 자유롭

16) 펜, 『마이크로트랜드』, 244-51

17) 펜, 『마이크로트랜드』, 217.

18) 아탈리, 『21세기 사전』, 206-07.

19) 아탈리, 『21세기 사전』, 272.

20) 펜, 『마이크로트랜드』, 510. 펜은 세계에 약 9,900개의 종교가 있고 매일 한 두 개씩 생겨난다고 한다.

21) 아탈리, 『21세기 사전』, 230-232.

고, 타인을 환대하고, 언제나 경계하며 적과 맞설 준비를 하고, 동시에 타인을 환대하고(생존 전략), 부족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박애적이어야 한다. 유목은 서로 충돌하면서 연결된 두 세계 사이에서 관용적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부족이 가깝게 모여 살고 이웃 사이에 박애가 생겨난다. 그러면 정착민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인간 자신이 복잡하고 가벼운 물품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유목 물품이 되고자 할 것이다.

과학, 어린이, 젊은이, 여성, 종교, 유목하는 인류...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이다. 그래서 웨이거가 “과거를 복원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한 것이 말이 된다.²²⁾ 현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2. 현재에 서서

1) 세계의 여성

글로벌시대 세계의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글로벌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특별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남성이 정해놓은 게임의 법칙을 깨야 하는 시대라기보다 남성들도 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²³⁾

서구사회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여성은 먼 길을 걸어 자신의 자리를 쟁취해왔다. 아시아의 여성은 남성 지배구조에서 부상하여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 겪는 여성의 부상을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다. 아시아의 여성은 특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크게 바꾸었다.²⁴⁾ 결혼은 ‘언제 하느냐’에서 ‘왜 해야 하느냐’로, 배우자는 집안이 정해주는 상대에서 내가 선택하는 상대로,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이냐’에서 ‘왜 낳느냐’로, 관계는 남편과 가정 우선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로, 선택은 ‘결혼은 싫지만 어머니가 되는 것은 좋다’로 바뀌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은 언론, 법조계, 홍보 등 말로 먹고 사는 직종에 대거 진출 중이다. 2005년도 노동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4분의 3이 여성이고, 언론 분야는 여자가 57%, 홍보는 70%이고, 특히 법조계는 1970년대 이래 여성변호사는 2,900배 증가했다. 현재 법학과(로스쿨)는 여학생이 졸업생의 절반 약간 넘게 차지하

22) 워런 웨이거(W. Warren Wagar), “과거와 미래,”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146.

23) 2007년 <세계여성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베쓰 브룩(Beth Brooke)이 한 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63961>

24) 존 나이스비트, 『메가트렌드 아시아』 (홍수원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6), 353. 원제는 John Naisbitt, *Megatrends Asia*.

고, 부학장의 3분의 2가 여성이다. 그러나 로펌의 경영진에서는 17%만이 여성이고, 주류 언론계 정규직 여성은 3분의 1이 여성일 뿐이다. 정치계는 여성이 다음으로 개척할 분야이다. 여성 상원의원이 20년 전에는 단 한 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17명이다.²⁵⁾

미국에서 자신의 말로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여자들’은 어떨까?²⁶⁾ 펜의 『마이크로트렌드』에 나오는 미국의 여교역자 이야기를 좀 길지만 여기서 소개한다. 지난 20년간 안수를 받은 여교역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신학교는 여학생 비율이 51%이고, 지난 10년간 신학을 전공하는 여성 수는 100% 증가하고, 남성은 50% 증가했다. 여교역자는 정치적 이슈와 인권 문제에 남성 성직자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빈부격차와 사회복지 문제를 최대 이슈로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인종차별, 관용 및 인권 문제, 공공질서와 예의범절,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그 다음으로 꼽았고 국방 및 외교정책은 최하위이다. 남성 성직자와 달리 ‘가족의 가치’나 ‘국가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와 같은 영적, 도덕 차원의 위기감은 최하위이다. 여교역자는 교인들 사이의 정치적 이해나 다른 이들에게 행사하는 권력, 직업적인 특권의식 등에는 관심을 훨씬 덜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회 밖으로 소외된 적이 있는 새 신도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덜 권위적인 여교역자의 모습이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덜 권위적인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교역자는 남성성직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다. 연합감리교회 여성성직자 19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잠을 푹 못 잔다고 답했고, 57%가 우울하다고 답했다. 기혼 여교역자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해주는 ‘사모’가 없어서 목회에 도움이 안되고 성직자와 아내 역할 동시에 해야 한다. 한편 미혼 여교역자는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련과정을 마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직 업무를 맡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인지도가 높은 교회에서 활약하는 여교역자의 수는 너무 적다. 1960년에서 2002년까지 교인 수를 조사한 통계에서 여교역자 안수를 허용한 교파가 그렇지 않은 교파보다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교역자를 배제한 (2003년 당시까지) 남침례회,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등은 신도 수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다. 여성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겼던 복음주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미국 성공회, 미국 침례교회는 소폭이지만 줄어들었다. 펜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진보적 요소를 반기지 않는 종교의 보수성’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 통계는 한국의 보수 교회에 여성 안수를 반대할 또 하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세계화와 불확실한 미래라는 강적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작년 가을에 한국의 MBC가 주최한 <세계여성포럼>을 위해 세계 각 분야에서 영향

25) 펜, 『마이크로트렌드』, 94-99.

26) 펜, 『마이크로트렌드』, 110-16.

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한국에 왔다.²⁷⁾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로써 시대의 흐름을 읽고 21세기에 필요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 말한다. 먼저 베쓰 브룩(Beth Brooke, 전 세계에 140개 지사와 12만 5천 명의 직원을 둔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USA]의 부회장)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브룩은 2006년에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여성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그 때 말단 직원들이 ‘부회장님’이 아닌 ‘베쓰’라는 이름을 쓰며 직접 이메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과거에 높은 사람에게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던 브룩으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젊은이들은 평평한 조직을 원하며 과거와 같은 위계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많은 연봉과 고위직을 바라기 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원하고, 자신의 기업이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는다. 젊은이들은 상사 및 CEO의 언행일치를 원한다. 오늘날은 조직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삶이 직원들에게 다 공개된다. 리더들은 젊은이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리더들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역으로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

베쓰는 글로벌 기업이 사회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IBM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싱가포르보다 크고, 소니는 파키스탄 보다 크고, GM은 덴마크와 맞먹는 경제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임무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업이 NGO나 교회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교회는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일할 계획도 할 필요가 있다.

베쓰는 양성평등은 옳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본다. 여성이 경쟁할 줄 알고 외교술이 뛰어난 것은 세계화시대에 유리하다. 기업이 글로벌하게 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졌고 요구도 다양해졌는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협력, 포용력, 외교력이 중요하다. 글로벌 지도자는 국제적 감각, 창의력, 윤리성이 있어야 하므로 여성은 자신이 어떤 면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고 보강해야 한다.

안순훈²⁸⁾은 향후 50년간 일어날 변화는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혼합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순훈은 “직업 안정성이 사라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국적의 구별은 희미해졌다”고 말하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률이 높아져 평생 10개 정도의 직업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전

27) 아래 글은 2007년(9월 12-14일)의 <세계여성포럼>(주제: 여성 리더십과 성공의 재조명)을 참석하고 기록한 것과 당시 인터넷 뉴스에서 모은 글에서 소개하는 것이다. 이 포럼은 한 권의 책으로 요약되어 나왔다. 세계여성포럼 사무국, 신진상, 『한국여성 세계석학 25인을 만나다-1st 세계여성포럼 스페셜 리포트』 (엠북스, 2008). 2008년 10월 21-23일에 열리는 <세계여성포럼>의 주제는 “변화의 주역, 여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이다.

28) CEO, Ahn's Consulting.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등에서 30년간 국제 인사 담당자로 일했다.

문가가 된다는 것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life style)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안순훈의 말이 인상적이다. 국제적 경력에 필수적인 기술은 사회성, 문제해결 능력, 언어 구사력, 다문화적인 유연성(다름에 대한 존중)과 유머 감각,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소프트 기술이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의 요건으로는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학구열(도전과 근면)을 갖추어야 급속히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성공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는 도식화된 방식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재정의(redefine)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안순훈씨가 자신의 성품과 사상,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신체부분이 머리모양이라고 하면서 개성있고 자신감 있는 머리 모양을 강조한 점이다. 여성의 머리 모양은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인 것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²⁹⁾ 산업혁명 이후의 굴뚝산업에서는 남성의 근력이 중요했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 경제에서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본다. 지식사회는 여성에 대한 제약과 모든 전통을 원초적으로 흔들 것이다. 정부, 국경, 사회, 문화 등의 경계도 흔든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집단인 기업들조차 적응하기 힘든 상태이다. 노동조합, 학교, 정부, 법과 법 관련 기관은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 되어가고 있다.³⁰⁾ 『부의 미래』에서 교회의 속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시대라서 무언가 붙잡고자 종교에 의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노령화가 되어 사후세계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회사, 기관, 나라 내에서 신, 구 시스템 사이에,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기거나 지는 사람들이 있다. 한 그룹 내에서 두세 가지 문명, 두세 가지 물질이 갈등한다. 세계화는 모든 사람들을 비슷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개인과 다양성이 심화되고 인정될 것이다.

토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 경제학에서는 가사노동(화폐로 환산하면 연간 약 134,000 달러/ 약 1억 5천만원)과 같은 비화폐활동이 제 2의 경제(Second Economy)로서 새롭게 평가되고 활성화된다. 신문과 같은 굴뚝산업의 산물이 지식사회에서도 건재하려면 탈대중화(demassification), 곧 개별 맞춤 상품으로 변신해야 한다.

토플러는 한국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나라와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그런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을테니 투쟁해서 얻어내라.” “국내 판 신문만 읽지 말고 다른 나라 신문도 읽으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계를 분석한 글을 만날 수 있다.” “좀 특이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 다양한 친구를

29) 토플러는 20여년 전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인류는 제 1의 물결인 농업혁명으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 2의 물결인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면 제 3의 물결인 정보혁명이 일어나 정보사회가 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참조. 토플러, 『제 3의 물결』, (원창엽 역) (홍신문화사, 1994). 원제는 *The Third Wave* (New York: W. Morrow & Co., 1980).

30) 앨빈 토플러, 하이드 토플러, 『부의 미래』, (김중웅 역) (청림출판, 2006), 59-72. 원제는 *Revolutionary Wealth*.

가져야 사고가 넓어진다.”

중국 최대의 맥주회사인 칭따오 맥주의 옌쉬(Yan Xu) 부사장은³¹⁾ 처음에는 남성 직원들이 여성 상사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400%의 수익을 올려놓자 다음 해 설날에 남자 직원들이 꽃다발을 주었다고 한다. 옌쉬는 아시아 여성이 가진 장점이 세계화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특유의 근면과 인내에서 집중과 정열이 나오고, 강인함에서 실행력이, 상상력에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보았다. 아시아 여성이 가정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연결된다. 리더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리더가 되기 전에는 성공은 자신의 성공이다. 그러나 리더가 되면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또 한 사람은 두바이에서 온 젊은 여성 리더 알 마리이다.³²⁾ 마리는 통계를 통해 두바이 신화의 주역은 젊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학 졸업자 중 80%가 여성이고, 의사, 약사, 교사 등 전문직의 70% 여성이다. 두바이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2%가 여성이다. 국회의원의 22%, 여성 장관 2명, 대학교수의 15%가 여성이다.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는 젊은 여성을 ‘암사자’라고 부르며 두바이의 기적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격려와 지원이 많다고 했다. 마리의 자랑을 듣다보면 이제는 두뇌의 절반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국사회에 충고하던 엘빈 토플러가 생각난다.

같은 21세기를 살지만 21세기가 주는 혜택을 모든 여성이 받는 것은 아니다. 세계 문맹인의 3분의 2가 여성이고, 빈민의 60%가 여성이다. 12억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고, 25억 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산다. 가난은 점점 더 여성의 얼굴을 갖는다는 점은 큰 도전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지도력, 배려, 감성, 외교력 등 21세기가 요하는 지도력을 여성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억할 점은, 역사상 여성의 인권향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성에게 유리한 지식사회일지라도 아무도 여성에게 성공을 그냥 갖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브룩이 여성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들어본다.³³⁾ 첫째, 여성은 도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도 하루하루가 도전”이다. 브룩은 여성은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지레 겁을 먹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 스스로 찾고 영

31) 1999년 옌쉬는 이 회사에 스카웃되었다. 당시 회사는 3,500만 위안의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듬해 7,500만 위안의 흑자로 만들었다. 2006년에 4억 위안이 순이익을 냈다. 2006년 60개국에 80억병의 맥주 판매했다. 옌쉬 부사장은 2006년 중국 언론이 정한 ‘10대 중국 여성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

32) 두바이 프레스클럽 회장, 다국적 홍보회사인 버슨 마스텔라의 중동 자회사인 지원피알 대표, 두바이 여성개발원 이사장, 국제프레스클럽협회 사무총장, ‘젊은 아랍지도자회’ 이사장.

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63961>

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꾸준히 도와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 진급에 가장 큰 장애는 문화적 편견이지만 사회 환경에서 여성이 수적 열세에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일단 여성이 탁자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앉은 여성은 더 많은 여성을 끌어와 탁자에 앉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교역자, 신학인에게도 다를 바 없는 조언이다.

2) 한국의 여성

한국의 여성, 오늘 잘 나가고 있는가? 한국의 통계청은 지난 2008년 7월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³⁴⁾ 이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초혼은 28세, 평균 수명은 82세, 평균 출산은 1.26명, 외무고시 합격률은 67.7%, 행정고시는 49%이다. 여성의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는 19.3%로 10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여성 국회의원(18대)은 13.7%로서 지난 2000년(16대)에 비해 7.8% 늘었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은 68.8%인데, 이 가운데 상용직은 28.7%, 임시직 29.9%, 일용직 10.2%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은 14%나 낮아 여성이 취약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의 수는 지난 1980년(116만 9000명; 14.7%) 보다 2008년(368만9000명, 22.1%)에 약 3.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가구주는 약 1.9배 증가했다.) 이 통계를 해석하자면, 한국의 여성은 결혼 연령이 조금씩 늦어지고,³⁵⁾ 자녀는 적게 갖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고용은 불완전하여 남성에게 비해 수입이 적고, 더 많은 여성이 가구주 역할을 하고, 늙었을 때 더 가난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다. 전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동시에 여성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도 42%로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여성보다 3배나 많았다. 30대 전문직 여성들의 52%의 경우 혼자 살겠다고 답했다.³⁶⁾ 교회 안에도 독신여성으로 넘쳐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청년회는 여자가 더 많고, 30대 미혼여성도 많다. 여교역자들의 경

34)

뉴시스

2008-07-02;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0807021206341300

35) 웨이거는 여성과 가족의 미래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1. 분석(extrapolation) 모형: 현재 트렌드에서 남녀가 평등해지고 역할분담형 결혼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2. 금전에 의한 결합초월 모형: 이 모형에서는 이성결혼 외 동성결혼 등 다양한 결혼의 선택이 가능하다. 3. 역회전 모형: 사회, 경제, 환경적 절박함이 가부장적 모형으로 회귀할 것을 강요한다. 웨이거, “과거와 미래,” pp. 153-54,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36) 통계청의 ‘9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가구수가 1975년 11.85%에서 1995년 21%로 증가하였다. 독신여성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다. 스웨덴은 인구의 40%가 혼자 살고 있으며 그 중 29%가 독신여성이다. 미국 통계청(2000)은 성인 56%만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4%는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길어져 서른인데도 미혼인 여성은 1960년대 이래 3배 가까이 증가하여 현재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는 어떤가? 서울 Y교회의 경우 3백여 명의 여자교역자 중 1/3에 가까운 숫자가 미혼여성이며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독신 선교사 9명 중 7명이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³⁷⁾ 한국 사회에서는 독신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다.

편견은 미망인이나 이혼여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한국은 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회로 꼽혔다.³⁸⁾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 Public Opinion, WPO)이 지난 2008년 1월-5월 사이에 중국, 미국, 인도, 프랑스, 한국 등 17개국에서 17,595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미망인·이혼여성 차별 실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미망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터키(70%), 팔레스타인(61%), 나이지리아(58%), 중국(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2%로 이집트(80%), 터키(72%), 팔레스타인(53%), 이란(51%) 등을 앞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망인이나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전 세계적 현상이다. 30대 전문직 여성의 52%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최근 결혼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사회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별도로 한국 여성은 '나쁜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조사가 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여성 직장인 1,151명을 상대로 '독하고 못됐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당당하고 자기주장 강한 '나쁜 여자'로 살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62.8%),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서'(13.3%), '착한여자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10.6%),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6.6%), '시대에 맞는 여성상이어서'(6.2%)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이 스스로 '나쁜 여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백분율로 평가한 '나쁜 여자 지수'는 평균 44.6%였다.³⁹⁾ 늦은 결혼과 경제적인 능력 향상, 자기표현과 내공을 키운 여자들이 늘어가면서 이 '나쁜 여자' 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교회는 이 '나쁜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독신여성, 미망인, 이혼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은 '나쁜 여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다. 토플러가 말한 대로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두 문명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여자들은 어떠한가?⁴⁰⁾ 1932년도 감리회 동·

37) http://jmf.or.kr/jmf/technote/read.cgi?board=mary_data&y_number=10&nnew=1

38) 연합뉴스 2008년 6월 24일

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553710> (서울=연합뉴스) 2007년 2월 21일.

40) 여전도사에 관한 아래 논의는 다음 블로그에서 왔다. 예수평전의 저자 이드, <http://blog.theple.com/insunlight/folder/196.html?uid=7004> [이드의 종교시평] 여전도사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나?

중·서부연회 통계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남녀 교역자 간에 임금 격차가 적었다. 남자목사 223원, 전도부인 175원으로 여자는 남자의 약 70% 수준이었다. 인천이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방이었는데, 담임목사 137원, 전도부인 11원으로 여자는 남자의 약 8%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남녀 교역자의 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목사와 전도사의 임금 격차는 일제 강점기 시대와 그리 차이가 없다. 노동부(2003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02-503-9709-10)에 의하면 전 직종의 월 평균 임금은 1,651,100 원이었다. 그 중 전도사는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807,000원이었다.

전도사의 경우는 해마다 고용계약을 해야만 하는 소위 비정규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과거의 전도부인은 대개 언문 정도를 깨우친 저학력자였으며, 과부 등 불우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의 전도사들은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고학력 직업이다. 교회가 전도사를 청빙하는 광고문에서 ‘남전도사님은 35세 이하 기혼, 여전도사님은 50세 이하 독신’과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전도사는 남성교역자를 돕는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도 독신이어야 한다. 남자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에 이어 강도사(준목), 부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되어 있다. 기장이나 기감, 예장통합, 성결교회 등 일부 교단이 여성 안수를 인정해도 목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교인들은 대부분 남성 목회자만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를 담임자로 청빙하지 않고, 개척을 하자니 ‘자본금’도 없고, 생계가 걸린 보조 목회 자리를 그만두기도 어렵다.

그런가 하면 신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사업가, 예술가로 성공하고 살아가는 여성도 심심치 않게 늘고 있다. 내가 만나본 이들의 특징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명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단순히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소명의식과 관련하여 선택하고 일을 한다고 했다. 신학을 공부한 한국 여성이 전통적인 직장인 교회, 특수목회, 선교사가 아니라 국제 교회기구, 인권기구, 정치기구 등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요즘 신학생은 국제무대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신학교는 ‘직업알선’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3. 다시 미래로 돌아가서

흥미롭게도 세계화시대에는 모순적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점을 잘 관찰하면 미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열거한 25가지 모순 현상 중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것을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나누어 본다.⁴¹⁾

경제

1.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⁴¹⁾
2. 돈을 적게 벌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3. 미래의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대기업이거나 작고 독립된 회사이다.
4. 경제는 세계화되는 동시에 지역화 된다.

개인

1. 사람들은 더욱 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는 동시에 더욱 더 자연으로 돌아가 산다.
2. 사람들은 더욱 더 소속되길 원하지만 동시에 집단으로 취급받고 명령받는 것을 싫어한다.
3. 사람들이 인공적이고 자동 구성되는 정체성(point-and-click 인격)에 익숙해질수록, 독창적이고 현실적이며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기능이 더욱 높이 평가받는다.
4. 세상은 창의적인 개인과 천재 양육을 요하지만 동시에 협동이 변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교회

1. 교회는 가정교회나 셀 그룹 형태로 점점 더 ‘작아져’가는 동시에, 초대형 교회처럼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성도는 대형교회에 속해있는 반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한다.
2. 예배는 점점 더 예식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형태를 띠어간다. 전에는 동방 정교회와 오순절파가 뚜렷이 달랐다면 이제는 ‘카리스마적 성공회’(Charismatic Episcopal Church)와 같은 형태가 생겨났다.
3. 텔레비전 복음사역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다.
4. 사람들은 종교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미국인 65%가 미국인의 삶에서 종교가 그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답한다. 동시에 62%가 자신들의 삶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세 영역의 모순적 현상들은 교회의 미래를 지시한다. 이 현상을 고려하여 미래

41) 레너드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김영래 역) (좋은 씨앗, 2004), 000. 원제는 *Leonard Sweet, AquaChurch* (Group Publishing, 1999), 197-201.

42)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07-08, 미국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가정의 0.5%는 국가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다. 스윗은 묻는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면 교회는 빈민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두 그룹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역설, 양쪽 그룹을 위해, 함께 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회를 준비할 수 있다. 미래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로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이다.⁴³⁾ 지난 대선들과 촛불문화제에서 보인 것처럼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다. 과거 인쇄문화의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웹문화의 사고방식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터넷은 과거에 속해 있지 않다. 웹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로 교육체계를 바꾸고 있다. 포스트모던의 자녀는 근대인들과는 다른 인지력과 학습능력을 갖고 있다. 시각, 청각, 감각을 모두 이용하여 학습한다. 포스트모던의 전자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산업시대 교실의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자극과 영감을 주는 공감각적 웹을 통해 배운다.⁴⁴⁾ 그렇다면 일반 학교교육은 물론 교회교육과 운영방식도 학습자 및 사용자 맞춤형 (custom-tailored)으로 바뀌어야 한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Willow Creek Community)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Bill Hybels)는 사람들이 진정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알기 위해 이웃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1975년),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⁴⁵⁾ ‘고객’에 맞춘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미래는 또한 경계가 더욱 없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일과 휴식, 가정과 사무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정통 일간신문과 공짜 신문의 경계가 흐려졌다. 예술계에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 심리학에서는 성인들에게서 어린이 같은 내면이 발견되고, 어린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성인이 된다. 적과 친구도 모호해진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그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교계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선이 흐려지고 있다. 신학교에는 전문직을 가진 평신도들이 주간, 야간에 입학하여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 은사에 따라 평신도는 교회 내 영역은 물론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로 일한다. 실제로 성경은 성직과 평신도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은사와 기회만을 구분한다.⁴⁶⁾ 덜 권위적인 여교역자로서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한국의 미래 교인들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개성과 창의성이 넘치고, 돈벌이를 위해 직업을 택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때

43) 라디오는 5천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38년이 걸렸고, 텔레비전은 13년, 인터넷은 4년이 걸렸다. 매일 6만 5천개의 웹사이트가 새로 등장한다. 인터넷 트래픽은 매 3년마다 천배 속도로 늘고 있다.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51 이하.

44)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342. 나 역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여러 창을 열어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고 꾸짖을 수만은 없다. 학교와 학교수업, 그리고 선생은 여전히 모던 시대에 속해 있고, 앉아 있는 학생들은 지극히 포스트모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45) 존 나이스비트, 페트리셔 애버딘 공저,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0), 338. 원제는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00*.

46)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이 점을 강조한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IVP, 2000), 83. 원제는 *The Call* (Word Publishing, 1998).

문에 직업을 택하고, 구미에 맞게 교회도 택할 것이다. 교회가 ‘고객’에게 맞추지 않으면 교회와 종교가 아닌 다른 영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탈대중화의 목회, 개인 맞춤형 교회를 원할 것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고,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컴퓨터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 사실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면 새로운 얼굴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미래 교회는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이나 괴짜들을 얼마나 잘 용납할 것인가? 기업은 괴짜를 알아보고 영입하려고 하는데⁴⁷⁾,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나쁜 여자’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주고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반기고, 창의적인 괴짜들에게 기꺼이 권력을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래 교회에는 여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이동 및 이주 결혼을 통한 유목민과 동시에 하이퍼 계급의 유목민도 많을 것이다.

결론

이 글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도전적인 단어가 미래를 엿보게 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이나 의학과 컴퓨터의 신기술보다는 여전히 인간에게서 나온다. 탈대중화 및 개인 맞춤상품, 인터넷과 웹 및 자기주도형 교육, 여성 사이의 빈부격차, 경계가 무너지고, 신흥종교운동,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고조, 젊은이의 부상, 역멘토링, 변화와 창의성 등의 개념은 새로운 미래 교역자, 새로운 미래 교회를 요구한다. 이 모든 단어는 젊은이들(15-35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의 젊은이들을 당장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에 ‘영입’해야 할 듯하다. 한 생애를 대략 90세라고 보았을 때, 창의적이고 유능한 35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 그 정도의 대표성을 주는 것은 발전적인 일이라고 본다. 미래 교회에서 나쁜 여자와 괴짜, 버릇없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은 교인들 중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역자도 그렇다. 여교역자는 더욱 그렇다. 21세기가 여성이 더욱 그래야 한다니까 말이다.

글로벌시대처럼 낯선 시대에는 낯선 친구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신학을 전공하고, 교회에 몸담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친구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사실 교역자들은 직장동료이지 친구가 아니다. 글로벌시대 지도자들은 우리더러 다른 직업, 다른 종교에 속한 친구들을 사귀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괴짜 친구들을 사귀라고 권한

47) 탐 피터스(Tom Peters)는, “지금은 괴팍한 시대이다. 괴팍한 시대에는 괴팍한 사람이 필요하다. 튀어야 산다(Distinct, or extinct.). 평범은 죄이다.”고 말했다. 피터스, 『미래를 경영하라』 (정성목 역) (21세기 북스, 2005) 참조. 스윗은 괴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고분고분하지 않다. 창의력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많다. 이상적이다.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하나의 회전목마로는 만족치 않는다. 어린시절부터 자신이 남과 다름을 알고 있다. 지성적이다. 완고하고 노골적이다. 경쟁적이지 않다. 식습관 및 주거습관에서 남다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장난기가 있다. 독신이다. 첫 아이이거나 외동이다. 글을 쓸 때 철자를 자주 틀린다.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314.

다.

21세기 여교역자에게 지금은 목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하다. 21세기는 도전하지 않는 여교역자에게는 과거보다 이기기 어려운 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들을 중재할 줄 아는 외교력과 포용력이 있고, 꾀짜 젊은이들과 모든 종류의 다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덜 권위적인 여성에게는 21세기가 기회이다. 미래 교회는 꾀짜, 나쁜 여자 교역자를 기다린다.

참고문헌

- 마크 켄, 『마이크로트렌드』, 해냄, 2007, 94-99. 원제는 *Microtrends: The Small Forces Behind Tomorrow's Big Changes*.
- 레너드 스위트, 김영래 역,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좋은씨앗, 2004; Leonard Sweet, *AquaChurch* (Group Publishing, 1999)
- 리처드 슬로터(Richard A. Slaughter), “지적, 응용 학문으로서의 미래학,” 158-89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제임스 데이터 편, 우태정 역. 예문. 2008. 원제는 *Advancing Futures*.
- 세계여성포럼 사무국, 신진상, 『한국여성 세계석학 25인을 만나다-1st 세계여성포럼 스페셜 리포트』 (엠북스, 2008)
- 앨빈 토플러, 하이드 토플러, 『부의 미래』, (김중웅 역) (청림출판, 2006) 원제는 *Revolutionary Wealth*.
- 앨빈 토플러, 『제 3의 물결』, (원창엽 역) (홍신문화사, 1994). 원제는 *The Third Wave* (New York: W. Morrow & Co., 1980).
-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IVP, 2000), 83. 원제는 Os Guinness, *The Call* (Word Publishing, 1998).
- 워런 웨이거 (W. Warren Wagar), “과거와 미래” 142-57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제임스 데이터 편, 우태정 역. 예문. 2008. 원제는 *Advancing Futures*.
- 웬델 벨(Wendell Bell), “책임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미래,” pp. 57-93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제임스 데이터 편, 우태정 역. 예문. 2008. 원제는 *Advancing Futures*.
- 이인식,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김영사. 2000.
- 자크 아탈리, 『21세기 사전』, 중앙 M&B, 1998. (편혜원, 정혜원 역). 원제는 Jacques Attali, *Dictionnaire du XXle Siecle* (Librairie Artheme Fayard, Paris, 1998).
- 존 나이스비트, 『메가트렌드 아시아』 (홍수원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6) 원제는 John Naisbitt, *Megatrends Asia*.
- 존 나이스비트, 페트리셔 애버딘 공저,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0)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00*.
- 탐 피터스, 『미래를 경영하라』 (정성목 역) (21세기 북스, 2005).

피터 매니커스(Peter T. Manicas), “과거 설명과 미래 예언,” pp. 217-32 in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 제임스 테이터 편, 우태정 역. 예문. 2008. 원제는 *Advancing Future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63961>
뉴스 2008-07-02;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0807021206341300

http://jmf.or.kr/jmf/technote/read.cgi?board=mary_data&y_number=10&nnew=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553710> (서울=연합뉴스) 2007년 2월 21일.

<http://blog.theple.com/insunlight/folder/196.html?uid=7004> [이드의 종교시평] 여전도사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나?

157